

종교교육학연구 제17권. pp.195~22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12

## 대순사상의 의미체계에 대한 상징해석\*

### -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중심으로-

尹在根

(대진대학교)

---

#### 《요약》

---

증산에서 연원하는 대순사상은 그 의미내용이 서민적이면서도 직접적이고 구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은유적이고도 복합적이어서 배면에 담고 있는 본질을 해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대순사상의 핵심은 참혹한 현실 세계를 개벽을 통하여 후천의 이상세계로 전환한다는 종교적 논리 구조의 '천지공사'이다. 이러한 천지공사는 인간과 외계사물에 대한 증산의 종교적 경험세계라고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별적 내용의 진위여부보다는 그의 종교적 경험 세계에 대한 실천행위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징체계는 미숙하고 근시적인 상태에서 해방되려는 기층민중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천지공사의 몇 가지 예를 종교적 상징으로 해석하고 의례에서 나타나는 언어 또는 사물들이 어떠한 의미체계를 가지며 인간의 현실생활에 있어 어떻게 관계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키워드: 천지공사, 개벽, 해원, 종교 의례, 종교적 상징,

---

## I. 논의의 관점

대순사상의 핵심은 참혹한 현실의 선천 세계를 개벽을 통하여 후천의 이상세계로 변혁한다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천지공사<sup>1)</sup>이다. 따라서 천지공사는 인간

---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증산은 혼란하기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 고쳐서,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과 외계사물의 구원에 대한 실천행위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적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진위여부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여러 양상의 존재태는 나름대로의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으나 언어라는 의사소통의 체계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의미의 체계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언어 자체가 상징(symbol)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어떠한 것이든 가장 원초적인 형태에 있어 단순한 전달을 위한 기호가 아니라 의미체계의 고차원적인 형식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언어 또는 의미 체계가 인간의 현실 생활에 있어 어떻게 관계하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대인들은 언어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안에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기도 한다. 인류의 원시단계에서 어떤 이름의 의미는 사물의 존재 자체와 결부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름은 사물 자체를 제시한다고도 믿는다. 따라서 동양철학적 정명론(正名論)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경험적이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말들은 주술적 에너지가 있어서 신들조차도 그 힘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었으며 이를 종교에서는 언령신앙(言靈信仰)이라고 한다.

또한 인간의 유아기에 있어서 모든 언어에 보편적인 주술적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유명적(唯名的) 실재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즉 인간의 유아 단계에 있어서는 언어와 사물을 구분하지 않고 언어가 존재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사물을 자기의 소유로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sup>2)</sup>

언어는 관계를 명명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물들의 개념뿐만 아니라 사물들의 결합이나 상황의 개념까지도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sup>3)</sup> 가장 뛰어난 상징체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말은 반드시 맥락 속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말 자체만으로는 내재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는 서술적인 기호에 불과할 따름이다.<sup>4)</sup>

종교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의례 또한 마찬가지이다. 의례란 몇 가지의 종교 행

---

신명을 광제(廣濟)하여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고자 천지를 개벽하고 새로운 배포를 꾸미는 법을 폈다. 이 일을 공사(公事)라 한다. 이 공사를 증산은 예전부터 이어 온 남이 지은 것이나, 낡은 것을 그대로 써서 불안과 위구를 간직하는 것이나 판 안의 법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관박에 남이 쓰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꾸미는 완전한 역사(役事)라고 선포하였다.

2) 이은봉, 《종교와 상징》, 서울: 세계일보, 1992, 15-18쪽 참조.

3) L K Dupre, 권수경 역, 《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서울: 서광사, 1996, p 51.

4) Wilbur M Urban, *Language and Realit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39, p 412.

위가 종교사상의 상징적 표현체계로 조직되어 집단적, 관례적으로 행위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거니와 종교신앙에서는 언어와 더불어서 중요한 의미체계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의 문제를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그것이 가지는 종교적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 Ⅱ. 천지공사의 기본구조

증산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과 세계 그리고 우주의 근본적인 변혁 즉 ‘개벽(開闢)’을 집행한 인물로 믿어진다. 그러므로 세계 구원의 종교적 행위로서 그의 천지공사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여러 측면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sup>5)</sup>

인간세계의 현실인식에서 출발하는 천지공사는 인간이 일상의 생활세계에서 벗어나 이상세계를 희망하고 있다는 종교적 전제가 있으며 종교사상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실생활에 대한 불만의식에서 보다 향상된 생활이나 사상을 희망한다는 현재적 관점이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이상세계를 지향한다는 지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대개 질병이나 경제적 빈곤 또는 어떠한 재앙 등의 곤경이나 위기상황이 절박할 때 스스로의 해결 능력이 부재함을 깨달은 인간적 자기소외의 한계상황에서 비롯되며 자기를 넘어선 초인간적인 힘을 필요로 한다. 그 때의 힘이 초월적 신격에서 나오거나 초자연적 주력(呪力)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인간내면의 심력(心力)에서 연유하거나 간에 그 유형의 내용은 비슷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절대타자와 자기와의 내면적 분유(分有)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구원의 관점에서는 타력적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sup>6)</sup> 그러나 그 절대타자의 절대타력이 자기 안에서 나누어 공유되고 내면화되어 자기 객관화가 성립될 때는 자력적 성격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는 현실적 불만의식과 한계상황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이를 증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

5) 김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90-91쪽 참조.

6) 장병길, 〈해원공사의 본질고〉, 증산사상연구회 편, 《증산사상연구》 제5집, 1979, 60-66쪽.

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봉(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sup>7)</sup>

본 연구자는 위의 인용문에서 천지공사의 논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원인-과정-결과’ 또는 ‘~에서~으로~하다’의 형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이며 그 내용에는 이미 이상사회의 건설에 대한 가치지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절대타자와 자기와의 내면적 분유의 관계에서 해원이 가지는 천지공사의 기본적인 원리가 표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것을 보다 쉽게 설명한다면, 인간세계는 파멸의 세계이고 파멸의 참혹한 현실은 인간들이 저지른 원(冤)에 기인하는 불상사이다. 그 불상사인 원의 시초는 요의 아들 단주가 정치적 불공정에 대하여 제한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품은 단초에서 비롯되고 그 뿌리는 또 하나의 원의 가치를 쳐서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마침내는 천지에 가득 차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는 파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원으로 인해서 생긴 참상과 불상사를 해결하려면 원(冤)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화적이거나 전설적인 소재를 이용한 것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의 인과 관계보다는 형이상학적 제일원인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상징되는 의미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원이 이와 같다면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하게 되는 본유적 감정이며 정의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병진하면서 벌이는 인간 감정의 과정현상이라고 보겠다.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정당성이 침해된 부당성의 의식에서 억울하고 원통하며 분통이 터지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고 이러한 에너지들이 상호 충돌하여 세상에는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참혹한 실상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주의 삼계가 고된 존재의 세계로 관망되는 한에서는 현실적 가치는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극주의는 인간들의 실제 생활에서 얻어지는 경험의 세계이며 자연적인 현상이라 하겠고 증산은 이것을, 원을 품게되는 포원(抱冤)의 현상으로 이해한 것이다. 포원은 그의 종교적 체험에 있어서는 다른 것과 대치될 수 없는 절대적 사실인 동시에 시대적 변천의 소산이라고 하겠다. 증산은 이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는 한계상황을 인지하고 인간의 제한 상황을 전제하여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초신명적 내지는 초자연적 존재에 의한 포원

7) 전경, 공사 3-4.

의 해소를 생각한 것이고 삼계구원의 실현을 조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세계이며 종교적 경험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증산은 이러한 경험 세계를 바탕으로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해서 선도나 불도나 유도나 서도 혹은 법술(法術)로도 능히 난국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이 넓고 복잡하므로 그것들의 진수를 뽑아서 새로운 진법도수에 옮겨서 써야한다<sup>8)</sup>고 이해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의 창출을 위해서는 옛 질서를 뜯어 고치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새롭게 마련하는 역사(役事)는 선천시대에서는 사사물물(事事物物)이 서로 분립하고 대립하면서 성장하는 상극법(相克法)에 지배되었는데 그 시대가 반전되어 후천시대의 새 세계가 열리고 사사물물이 상생법(相生法)에 지배되어 성실(誠實)하고 관왕(冠旺)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sup>9)</sup>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하여 우주를 조화하게 된 까닭은 삼계의 운도수(運度數)에 부정(不正)과 불응(不應)의 현상이 생기고 우주 안에 있는 신명들의 세계와 사람들의 세계에서 제각기 투쟁하는 상극이 벌어져 서로가 원한을 품게 되고 급기야는 진멸(盡滅)하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sup>10)</sup>

이에 따라 증산이 세상을 제도하고 병겁과 재난으로부터 인류를 구하여 차안의 세계에 선경을 건설하는 덕을 베풀게 된 것이며 이를 일러 천지공사라고 했다. 그 공사와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는 조화의 극적 모티브가 곧 개벽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증산의 천지공사의 대역사는 상제임을 자임하며 하늘, 땅, 사람의 세계를 통할하는 삼계대권(三界大權)으로써 1901년인 신축(辛丑)년부터 9년 동안 계

8)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드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 이것은 다만 선, 불, 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전경, 예시 73);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도(道)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合)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전경, 예시 13)

9) 受天地之虛無仙之胞胎

受天地之寂滅佛之養生

受天地之以詔儒之浴帶

冠旺

兜率虛無寂滅以詔(전경, 교운 1-66, 현무경 24면 참조.);

天地之用 胞胎養生浴帶冠旺衰病死葬而已(전경, 제생 43절 참조.)

10)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95-96쪽.

속되다가 기유(己酉)년인 1909년에 종결되기에 이르렀다. 그 9년 동안의 대역사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뜯기고 헐려서 새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후천선경이라고 불리우는 지상의 천국이 마련되는 것이다.<sup>11)</sup>

### Ⅲ. 천지공사의 표상과정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천지공사는 종교적으로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여 그 내용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편성하고 목적하는 바의 의미체계를 탐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구조나 가치지향성을 확인하고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왜냐하면 종교적 언어가 대부분 상징적 언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상징적 언어는 바로 당해 종교의 세계상을 투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장병길의 분석적 방법을 토대로 전경의 공사편 중 일부를 그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sup>12)</sup>

증산은 천지공사를 역사함에 있어서 유질형상(有質形象)의 체(體)를 사용하여 “후천에서는 종자를 한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돋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되리라....”<sup>13)</sup>는 그의 말대로 사물을 목적하는 바대로 변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의 공사에 의하여 변화·개조된 사상(事象)들은 “문명이 삼천국에서 꽃피고, 도술의 운이 9만리에 통한다”<sup>14)</sup>는 종교적 경험세계의 결과를

11) 앞의 책, 97쪽.

12) 그는 천지공사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전경의 공사편 3장 41절에 기록된 득체(得體)-득화(得化)-득명(得明)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장병길, 앞의 책, pp 97-101 참조) 이는 동양철학적 체(體)와 용(用)의 관계에 주목한 듯하다. 그러나 그 용어의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여기서는 체(體)-화(化)-명(明)으로 표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종교적 변화행위에 대하여 현상자체의 원인을 체(體)라고 하고 변화의 수단이나 과정을 화(化)라고 하고 종교적 행위에 의한 변화의 결과를 명(明)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13) 전경, 교법 3-41.

14)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후 천하지 대금산(天下之大金山)

모악산하(母岳山下)에 금불(金佛)이 능언(能言)하고

육장 금불(六丈金佛)이 화위 전녀(化爲全女)이라

만국 활계 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 명월 금산사(淸風明月金山寺)

문명 개화 삼천국(文明開花三千國) 도술 운통 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

(전경, 예시 14)

언게 된다.

그리하여 공사는 현존태의 체(體)를 사용해서 사사물물의 변화 내지는 개조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종교적 이상태로 재창출되는 ‘체(體)-화(化)-명(明)’의 노정을 밟게 된다. 체로서는 정기(精氣), 주언(呪言), 말씀 또는 어떤 물질이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화로서는 이술(理術), 기술(氣術), 신술(神術) 또는 선술(仙術)이나 도술(道術), 묘술(妙術)이 사용되는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하면 현존태로서의 체가 변화 내지 개조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예를 전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 정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부모산(父母山)의 정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 부모산은 전주 모악산(母岳山)과 순창(淳昌) 회문산(回文山)이니라. 회문산에 이십 사혈이 있고 그 중에 오선위기형(五仙圍基形)이 있고 기변(碁變)은 당요(唐堯)가 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다음에 네 명당(明堂)의 정기를 종합하여야 하니라. 네 명당은 순창 회문산(淳昌回文山)의 오선위기형과 무안(務安) 승달산(僧達山)의 호승예불형(胡僧禮佛形)과 장성(長城) 손룡(巽龍)의 선녀직금형(仙女織錦形)과 태인(泰仁) 배례밭(拜禮田)의 군신봉조형(群臣奉詔形)이니라. 그리고 부안 변산에 二十四 혈이 있으니 이것은 회문산의 혈수의 상대가 되며 해변에 있어 해왕(海王)의 도수에 응하느니라. 회문산은 산군(山君), 변산은 해왕(海王)이니 상제께서 그 정기를 뽑으셨도다.<sup>15)</sup>

② 상제께서 김 형렬을 앞세우고 익산군 만중리(益山郡萬中里) 황 사성(黃士成)의 집에 이르러 머무실 때 어떤 사람이 얼굴에 노기를 띄고 문을 뚫는 바람에 벽이 무너졌도다. 이것을 보시고 곧 상제께서 같은 동리의 정 춘심(鄭春心)의 집에 옮기시니라. 황사성의 부자가 춘심의 집으로 상제를 뵈옵고자 와서 전말을 아뢰이니라. 황 사성의 부친 숙경이 「황 참봉(黃參奉)으로부터 돈을 얻어 썼으나 그는 죽고 그 아들이 사람을 시켜 숙경에게 갚을 것을 독촉하러 온 것인데 그 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경무청에 고발하여 옥에서 신세를 썩게 하리라고 위협하고 돌아가는 마당에 상제께 들린 것이외다」 이 말을 들으시고

15) 전경, 공사 3-5, 6.

상제께서 「벽을 무너뜨렸으니 그 일은 풀리리라. 삿갓 한 뼛과 필목 한 필을 사 오라」고 숙경에게 이르고 「이것은 양자 사이의 길을 닦는 것이니라」고 알리고 「이후 일이 순조롭게 풀리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르셨도다. 연말에 순검이 채무관계로 숙경을 잡으므로 숙경이 순검에게 채권자의 집에 들러 주시기를 간청하니 순검이 그 채권자의 집에 데리고 가니 참봉의 아들이 숙경이 잡혀온 것을 보고 힐난하거늘 그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저 어른은 너의 부친의 친구이신데 네가 차마 그 분을 옥에 가두게 하다니 금수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고 책망하면서 아들로부터 증서를 빼앗아 불살랐도다.<sup>16)</sup>

①의 예는 ‘정기’를 뽑는 기술(氣術)로 반목투쟁을 없게 하는 것이고, 체(體)는 정기, 화(化)는 기술이며 그로 인해서 생긴 명(明)은 반목이 없는 화평과 상생(相生)의 질서이다.

②의 예는 삿갓, 필목이란 물질을 체로 써서, 이술(理術)에 의해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화해를 성립시키는 명(明)이 얻어진 예이다.<sup>17)</sup>

이러한 분석 내용은 과학적 논리구조와 흡사한 면이 있는데, 즉 과학적 기술도 물체를 이용하여 어떤 방법을 거쳐서 전제하였던 목적의 결과를 얻어낸다는 논리구조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다만 양자 사이의 차이는 과학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실세계라면 천지공사는 그것과는 다른 술(術)을 사용하여 과학적인 증명 이상의 것을 밝히려는 종교에 있어서의 경험세계라고 보겠다. 우리는 고래로부터 전래되는 천안통(千眼通)이니 천이통(千耳通)이니 하는 종교적 명(明)의 결과에서 종교적 경험의 세계를 종종 발견하게 되며 이것은 과학적 사실 증명의 세속적 차원을 초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순사상은 인류구원이 있으려면 하늘과 땅의 조화(調化)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고름의 작업 즉 하늘과 땅의 평탄작업을 일러서 삼계공사라 한다.

증산이 기유년(己酉;1909) 정월에 종필했다<sup>18)</sup>고 전하는 현무경(玄武經)에는 기초동량(基礎棟樑)이라는 용어가 보이며 이 현무경은 그의 화천(化天) 후 제자였던 김형렬과 차경석에 의해 필사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다.<sup>19)</sup>이 현무경은 부(符)에 필서가 되어 있으며 더러는 반서체(反書體)로 작성된 일종의 비서(秘書)이다. 이에

16) 전경, 행록 3-23.

17) 장병길, 앞의 책, 95-100쪽 참조.

18) 상제께서 기유(己酉)년 정월 일일 사시(巳時)에 현무경(玄武經) 세 벌을 종필하고 한 벌은 친히 품속에 지니고 한 벌은 도창현(道昌峴)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한 벌은 경석의 집에 맡기셨도다.(전경, 교운 1-66)

19) 치상 후에 형렬과 경석은 상제의 부친을 모시고 객망리에 가서 모친을 조문하고 다시 정읍 대흥리에 가서 상제께서 간수하신 현무경(玄武經)을 옮겨 썼도다.(전경, 행록 5-37)

의하면 공사는 기초동량(基礎棟樑)의 공정을 거치게 된다. 기초공정에서는 집을 세우려면 낡은 것을 허물고 터를 새롭게 다지는 것과 같이, 낡은 세계를 뜯고 허물어 버리는 공사를 의미한다. 동량공정에서는 마룻대를 올리고 대들보를 올리는 등 집의 골격을 세우는 공정과 같이 새로운 세계를 조성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초공정에서 옛 것이 회수되고 그 후에 후천이라는 종교적 이상세계가 열리게 된다.

기초공정은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sup>20)</sup>라는 종교사상에 근거한다.

고르지 못한 모든 사상(事象)은 증산의 공사에 의하여 뜯겨지고 소멸되어서 새로운 질서에 의해 교체되고 조성된다. 또한 여기에는 새롭게 조성되는 이상세계로 향하는 시점이 바로 현재라는 역(易)사상에 있어서의 시운(時運)에 대한 관념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새 시운에는 새 법칙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시운의 전환에 관해서 증산은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sup>21)</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후천에서 세계의 창생들을 광구(匡救)하기 위한 방편이 선천의 도수(度數)를 뜯어 고쳐 상생의 도수를 회전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질서의 일대 회전이 시운의 전환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선천의 도수를 뜯는다는 것은 선천이라는 현실세계를 운행하는 지배 법리나 질서를 교체 또는 전환시킨다는 의미이며 이는 후천이라는 이상세계를 지향하여 새 질서의 재정립 개념인 도수의 재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후천도수를 선천도수의 자리로 교체시킴으로써 선천도수는 소멸되는 것이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는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도수가 운회(運回)하는 운로(運路)를 뜯고 새롭게 갱정하는 것이며 선천에서의 양과 음이 교행하게 배열되거나 서로 배척했던 현상을 음과 양이 동행하도록 운로를 조정한 것이다. 또한 건(乾)이 곤(坤)을 쫓거나 곤이 건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건도가 소(消)하고 곤도가 장(壯)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공간과 시간이 교체되어 천문(天文)은 고르게 되고<sup>22)</sup> 새로운 세계질서의 시간과 공간은 동시에 열리는 것이다.<sup>23)</sup>

20) 전경, 공사 1-3.

21) 전경, 예시 6.

22) 장병길, 앞의 책, 104쪽..

23) 천지가 간방(艮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二十四방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느니라. (전경, 예시 50)

그러므로 새 세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초동량의 공정은<sup>24)</sup> 천문이 교체된 다음에 새로운 천문을 개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써 낡은 질서는 물러가고 선경의 무궁한 새질서는 인간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천지공사란 세상을 구제하는 역사를 일러 말하는 어휘이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공정에서 짐작할 수 있었던 대로 자연의 운행과 인간의 삶을 전환하고 조절하며 인간과 초인간적 관계의 불상사를 유화(宥和)하거나 혹은 위무(慰撫)하는 종교적 경험의 세계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인간은 자연의 운행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신축성이 있거나 또는 가변적이어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존재가 자연 운행의 경로에서 범람하기 쉬운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인간에 유익하게 자연 운행의 조절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우선 예상한다. 이 전제되는 태도는 자연운행에 신축성이 없고 조금도 변할 수도 없으며 바꾸어질 수도 없는 과학적 세계관과는 차이가 있다.

우주에 관한 이 상반된 두 견해 차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의식적이고 인격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이고 필연적인가 비인격적인가의 근본문제에 달려 있다. 종교는 초인간적인 힘의 유화로 기울어 전자를 전제하며 대순사상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 IV 천지공사의 종교적 상징성

그러면 상징적 표현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상징적 표현은 그 표현의 양의성(兩義性)과 다의성(多義性)에 있다고 하겠다. 언어가 자체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외의 것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례의 행위도 ‘의미의 이중성’ 또는 ‘다원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차적인 의미—문자 그대로 명시되어

24) 현무경의 허령부(虛靈符)와 지각부(知覺符)와 신명부(神明符)의 세 부도 속에는 반서체(反書體)로 된 무이구곡(武夷九曲)의 글자가 있다. 그 글이나 숫자나 부(符)는 낙서(洛書)의 구궁(九宮)을 토대로 짜인 것이며 구궁과 무이(武夷)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무이의 무(武)는 북(北)의 육계수(六癸水)를 말하고, 이(夷)는 고르다(均)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르다는 것은 아홉의 궁(宮)이 어떤 방위에서 시작하여 어떤 방위에서 그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홉 궁이 모두 한꺼번에 발(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이구곡은 부도(符圖)에서 땅을 상징하는 것이며, 무이구곡의 지기(地氣)를 발음하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명부 속에 있는 무이구곡은 신명계를 무이구곡과 맞추어 신명과 땅이 서로 공생(共生)하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장병길, 앞의 책, 107-109쪽 참조.)

는 의미—— 즉 ‘의미하는 것(significant)’이 있고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2차적인 의미 즉 ‘의미되는 것(signifié)’이 있다. 이 의미와 의미의 연관은 해석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며 상징적 표현은 해석을 동반하여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sup>25)</sup>

그렇다면 증산의 천지공사에 있어서의 상징성이 어떻게 제시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의 제양상에서의 언어와 의례<sup>26)</sup>의 상징성에 대하여 논구하고자 한다. 상징이란 어차피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천지공사로 이름 붙여진 명명(命名) 자체가 존재를 해석하는 것이며 언어에 의해 표현되는 우주적 상징과 종교 의례에서 표현되는 상상적 상징은 모두 고도의 의미체계이자 상징체계이며 정신작용이므로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 1. 해원(解冤)의례

대순사상은 기타의 종교사상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가시적인 스크린 배후에 인류를 초월한 의식적이고 인격적인 행위자의 활동을 전제한다. 그러나 그 전제는 사물에 관한 보통 견해보다는 훨씬 깊은 지식과 반성이 요구된다. 종종 인간의 차원을 넘은 존재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초인간적인 힘과 지혜를 계시하여 인간들의 생활을 인도한다고 믿는다. 종교적 경험 세계에 기초하여 그 초월의 존재는 인간, 만물만상, 자연의 운행 등을 조화(造化)<sup>27)</sup>해서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믿고 있다. 여기서 전경의 기록을 통하여 의미체계를 해석해 보자.

25) 이은봉, 앞의 책, 19쪽.

26) 제의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 번째, 제의의 구성적 활동은 항상 집단을 위한 것이지 고립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동일한 구성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함께임을 의식하게 되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출생, 성인, 결혼, 죽음 등과 관련된 제의들은 개인적인 사건들에 대중적인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을 집단에 통합시킨다. 또 다른 기능은 인간의 기원지인 동시에 계속적인 의존의 대상인 자연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이다. 제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과의 일체성을 되살리면서도 그와 동시에 문화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L K. 뒤프레, 권수경 역, 앞의 책, 1996, 68-79쪽 참조)

27) 장병길에 의하면 이 때의 조화란 ‘짓는다’, ‘되게 한다’는 뜻을 가진 낱말인데 공사를 체결하여 어떤 결과를 되게 하는 작용을 일컫는 어휘이다. 이 낱말은 공사에서 열쇠가 되는 말이다. 조화도 특별한 법의 원리 위에서 ‘짓는’ 것이고 멋대로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다. 조화는 득체(得體), 득화(得化), 득명(得明)이란 법에 근거한다. (장병길, 앞의 책, 110-111쪽.)

상제께서 피노리(避老里) 이화춘(李化春)의 집에 이르셔서 그에게 누런 개 한 마리를 잡고 술 한 동이를 마련하게 하고 뒷산의 소나무 숲에서 가장 큰 소나무 한 그루와 남쪽 양달에 있는 황토를 파오게 하고, 백지 닥 장을 청 홍 황의 세 색깔로 물들여서 모두 잇고 베어 온 소나무의 한 윗가지에 달게 하고 백지 석 장에 각각 시천주를 쓰고 그 종이 석 장에 황토를 조금씩 싸서 함께 잇고 또 소나무 가지에 달고 그 나무를 집 앞에 세우시니 마치 깃대와 같은지라.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곳에서 전명숙이 잡혔도다. 그는 사명기(司命旗)가 없어서 포한(抱恨)하였나니 이제 그 기를 세워주고 해원케 하노라.” 다시 상제께서 사명기 한 폭을 지어 높은 소나무 가지에 달았다가 떼어 불사르시고 최수운을 해원케 하셨도다.<sup>28)</sup>

위의 인용문에서 분석될 수 있는 조화의 법리를 앞 절에서 고찰한 바대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체(體)                               | 화(化)              | 명(明) |
|------------------------------------|-------------------|------|
| ① 희생: 황견(黃犬)<br>공물: 청주(淸酒)         | 희 공 제<br>(犧供祭)    | 해 원  |
| ② 백지(白紙:白·靑·紅·黃色)<br>황토(黃土)<br>소나무 | 사 명 기<br>(司命旗)    |      |
| ③ 시천주, 백지                          | 주문(呪文),<br>소지(燒紙) |      |

위의 인용문은 전명숙과 최수운의 한을 푸는 데에 있다. 증산은 전명숙과 최수운의 원을 풀기 위해서 명부를 주장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sup>29)</sup>, 전명숙이 체포되었던 순창 피노리 이화춘(李化春)의 집에서 사명기(司命旗)를 세우고 불사르는<sup>30)</sup>

28) 전경, 공사 3-2.

29) 상제께서 김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조선명부(朝鮮冥府)를 전 명숙(全明淑)으로, 청국명부(淸國冥府)를 김 일부(金一夫)로 일본명부(日本冥府)를 최 수운(崔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곧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고 말씀을 잇고 글을 써서 불사르셨도다. (전경, 공사 1-7)

30) 『예기(禮記)』<예기(禮器)>에 보면 천제(天祭)때 행해지는 승중우천(升中于天)’의 의식(儀式)이 있었다. 이 의식은 국가의 대사(大事)를 기록한 책자를 불태워 신명께 보여주는 의식이다.(이계학, <덕성과 지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유가의 지혜론, 2001학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

공사를 하였다. 이 공사처결에서 종교의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찾을 수 있겠다. 즉 소원한 바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원을 품게 된 것이고, 그 소원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품은 원은 해소된다. 이러한 것을 의례를 통해서 표명한 것이니, 전명숙과 최수운에 대한 해원공사의 의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회공의 상징성

개는 하늘에 바치는 직접적인 회공물의 의미뿐만 아니라 부정(不淨)의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이는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나 개의 피는 기우제(祈雨祭)에서 비를 초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즉, 하늘이 더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 비를 내려 피를 씻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노란색은 종교사상에서 오행의 황극(皇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니 중앙, 중심 등을 의미한다. 또한 술은 종교의례에서 지니는 뜻이 다양하나, 이 의례에서는 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명계와 인간계 사이에 있는 잡물을 제거하고 양자 사이를 융즉(融卽)시키는 매개체가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쓰인 술은 제사시에 신위에게 올리는 현주(玄酒)<sup>31)</sup>가 아니라 청불주(淸祓酒)<sup>32)</sup>로 쓰인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개의 회공과 술의 청불로 말끔히 씻어 없앤다는 종교적 상징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 ② 주구에서의 상징성

사명기는 손자병법(孫子兵法)에 나오는 생활권을 쥐고 있는 장상(將相)을 상징(;知兵之將 民之司命)한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고사(故事)에 근거하여 군기(軍旗)를 그들에게 넘겨줌으로써 동학란과 의병전에서 진몰한 군졸들을 명부에서나마 통솔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사명기의 흰색은 평화, 청색은 황위(皇位; 황기(皇旗)의 위계가 청색), 홍색은 승리, 황색은 중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니 사명기 자체가 승리를 의미한다고 보겠다. 또한 사명기의 대가 된 소나무는 상록수인 만قم 영원불멸을 말하며 사명기의 대가 천지를 잇는 왕래로(往來路)를 상징한다. 그리고 백지에 쓴 황토는 흙이 생명성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과 더불어 지덕(地德)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③ 주문에서의 상징성

시천주<sup>33)</sup>의 주문은 구세제민(救世濟民)의 주문이다. 주문이란 주술의 효과를

구보고서 III-2 참조, 미간행)

31) 현주(玄酒)는 고대 시대에 술을 대신하여 쓰는 물을 일컫는 바, 동이 뜨기 전 어두컴컴할 때에 맑은 샘물을 떠서 예로써 올리는 것을 현주라고 한다. (禮, 禮運; 儀禮, 士冠禮 참조)

32) 청불주(淸祓酒)는 신에게 빌어 제액을 제거하거나 또는 그 제사 때 쓰는 술을 말한다.(左傳 참조)

33)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의 13자 주문은 본래 동학에서 사용했던 주문이다. 수운 최제

가져오기 위해서 제창되는 언어이다. 그 목적은 질병에서의 완쾌, 비를 내리기 위한 것, 무사식재(無事息災), 풍작 등을 염원하는 인간의 이익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끝으로 의례의 장소나 사람의 이름인 피노리나 화춘은 모두 죽음을 피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 언어를 가차(假借)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2. 신명(神明)공사

증산의 공사가 가지는 상징성은 그가 공사처결에서 사용하는 종교언어의 의미 체계와 공사를 진행하는 의례과정에 있다. 여기에서 보면 증산은 자신이 삼계대권의 주재자로서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일상성과 비밀상성을 넘나들며 주변의 사물과 현상들을 조리한다. 심지어는 신 또는 신명적 존재조차도 인간과 자연현상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즉 신명도 공사의 대상이며 매개라는 것이다. 이를 신명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하늘, 땅, 사람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일그러진 방위와 도수를 바로 잡아 앞날의 이상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 바로잡힌 자리에 신명들을 좌정(座定)하게 하는 공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것은 다음의 표상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로 신명들을 팔문에 화정케<sup>34)</sup> 하여 신명계의 혼란을 정비하였다. 이 공사

우 1860년에 수도하던 중 한울님(上帝)으로부터 교명(敎名)과 영부(靈符), 주문(呪文)을 계시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13자의 주문을 시천주(侍天呪)로 명명한 전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 동학에서의 주문은 제자주문과 선생주문으로 나뉘며 제자주문에는 초학주(初學呪:爲天主願我情永世不忘萬事知), 강령주(降靈呪:至氣今至 願爲大降), 본주(本呪: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등이 있고 선생주문은 강령주문(降靈呪文:至氣今至 四月來 侍天主令我長生 無窮無窮萬事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보아 본주의 명칭을 증산이 시천주(侍天呪)라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산(鼎山)이 1917년에 공부에 전력하던 중 한 신인이 나타나 이것을 외우면 구세제민(救世濟民) 하리라”고 전한 글이 21자의 주문인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 願爲大降이라고 기록 되어 있다.(전경, 교운 2-7 참조) 현재 대순진리회에서는 이를 기도주(祈禱呪)라고 명칭하고 있다.

- 34) 상제께서 하루는 천지대팔문(天地大八門) 일월대어명(日月大御命) 금수대도술(禽獸大道術) 인간대적선(人間大積善) 시호시호귀신세계(時乎時乎鬼神世界)라 써서 신경수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공우(公又)를 주어 경수의 집 벽에 붙이게 하시고 가라사대 經수의 집에 수명소(壽命所)를 정하노니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장점만 취하고 혹 단점이 보일지라도 잘 용서하여 미워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때에 또 형렬(亨烈)에게 가라사대 법(法)이란 것은 서울로부터 비롯하여 만방(萬方)에 펼쳐나가는 것이므로 서울 경자(京字) 이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써야 할지 로다. 그러므로 경수(京洙)의 집에 수명소(壽命所)를 경학(京學)의 집에 대학교를 경원(京元)의 집에 복록소(福祿所)를 각각 정하노라.” 하셨도다.(전경, 예시 46)

는 선천의 문을 닫고, 후천의 문을 여는 역사이고, 각 문마다 수문장을 두어 문에 소속된 신장들을 거느려 소홀함이 없게 하였다.

둘째로 신명들이 운회(運回)<sup>35)</sup>할 궤도를 역사하여 운회로를 설정하는 일이다. 이 운회역사는 각 신명의 기운을 구체적인 지명을 가차하여 전체 세계에 미치도록 하는 기(氣)의 회전공사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선택된 구체적 지명이 고부(古阜)-전주(全州)-정읍(井邑)-태인(泰仁)-순창(淳昌)이며 이렇게 선택된 지명(地名)이 가지는 종교적 상징성은 대개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고부(古阜)는 자의(字意)적인 의미로 땅위의 첫 고을이라는 뜻을 가지며 이 고부 땅을 후천의 시점으로 삼아 선인포전(仙人布氈)<sup>36)</sup>의 기운을 쓴 것이다. 그러므로 후천세계의 자체신인 ‘천하자기신(天下自己神)’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전주(全州)는 음차하여 전우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氣)의 양산을 위하여는 음양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택리지’에 의하면 전주에는 건지산(乾止山)과 곤지산(坤止山)이 마주하고 있는 곳이며 부모산의 땅이라고 한다. 건과 곤은 음양의 상징이며 아울러 모악산과 순창의 회문산이 서로 마주 서 부양모음(父陽母陰)의 지형을 하고 있는 곳이니 후천세계의 음양신(陰陽神)을 전주를 중심으로 운회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천세계에서의 통정신(通情神)은 구궁을 상징한 ‘井’자의 고을을 중심으로 운회토록 하였다. ‘井’자는 사통팔달을 상징하는 뜻으로 통정(通情)에 비유될 수 있으니 정읍(井邑)의 의미는 이와 같은 것이다. 태인(泰仁)에는 군신봉조(君臣奉詔)의 혈형(穴形)이 있으므로 상하신(上下神)을 붙여 그 기운이 운회토록 하였다. 이에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룩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공간적 충만감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전우주로 회전시킨 에너지를 선악정사와 시비곡직이 위기(圍碁)에 비유되서 순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천하시비신순창운회(天下是非

35)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실 때 대체로 글을 쓰셨다가 불사르시거나 혹은 종도들에게 외워두도록 하셨도다.

天下自己神古阜運回

天下陰陽神全州運回

天下通情神井邑運回

天下上下神泰仁運回

天下是非神淳昌運回.....(전경, 공사 3-39)

36) 증산의 탄강지인 고부군에 대한 지형적 설명을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방장산(方丈山)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에 망제봉(望帝峰)과 영주산(瀛洲山)이 우뚝 솟으니 그 뒷기슭과 함께 선인포전(仙人布氈)을 이룩하고 있도다. 망제봉(望帝峰)의 산줄기가 기복연면하여 시루산을 이룩하였도다.”(전경, 행록 1-3)

神淳昌運回)’가 그것이다. 이는 순창에 오선위기(五仙圍碁)의 혈형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명부신명의 공사가 처결되었다. 선천에서의 참혹한 현상은 명부신명들의 포한에 따른 착란에 기인된다는 것이므로 그 원한을 풀지 않고서는 후천의 이상세계가 건설될 수 없는 것이다. 그 공사는 만고의 원을 품은 명부에 있는 신명들의 원을 풀어주는 데서 시작된다. 이미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원이 단주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단주의 맺힌 원한을 풀어줌으로써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종교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종교사상의 기저에는 흐트러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원상(原狀)의 정상상태로 회복한다는 사유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제한상황(制限狀況)에서의 탈피라고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사유체계가 대순사상과 천지공사에 있어서는 동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산의 명부공사에 대한 내용은 ‘원(冤)’을 풀어주는 것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 해원의 대상은 억울하게 원한을 품은 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충족시켜 품은 원한을 풀도록 하는 공사를 보게 된다. 그 중 정사(政事)를 바로 잡으려다가 억울하게 원을 품고 명부에 간 우국지사들이 있다. 이들은 난법난도에 빠진 나라를 건지려다가 목숨을 잃은 애국자들이라고 하겠다. 그런 만큼 한도 컸거니와 원도 짙었을 것이다.

조선명부를 전명숙

청국명부를 김일부

일본명부를 최수운

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sup>37)</sup>

이 처결도 지상에서 이룩하지 못한 조선국의 정사를 명부에서나마 맡게 하여 전명숙의 원한을 풀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일부<sup>38)</sup>도 중국의 역(易)

37) 상제께서 김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조선명부(朝鮮冥府)를 전 명숙(全明淑)으로, 청국명부(淸國冥府)를 김 일부(金一夫)로 일본명부(日本冥府)를 최 수운(崔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곧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고 말씀을 잇고 글을 써서 불사르셨도다. (전경, 공사 1-7)

38) 전경에 의하면 증산은 영가무도(詠歌舞蹈)의 교법을 펼치던 일부(一夫) 김 항(金恒; 1826~1898)을 1987년경에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역(易)을 한국의 인연과 지연에 맞게 재편성하여 정역(正易)을 주창하고 황극론(皇極論)을 편 인물이며 증산과 조우하여 효운(曜雲)이란 호를 드리고 공경하였다”(행록 2-1, 3절 참조)고 전한다.

을 바로 잡고자 하여 정역(正易)을 완성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으니 청국명부를 주장케 하여 지상에서 품은 원한을 풀도록 하였고 최수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역신들의 원한마저 풀어<sup>39)</sup> 함께 살도록 상생의 길을 열고 있다. 이 공사의 처결을 보았을 때 해원은 단순한 무속적 한풀이가 아니라 생명력과의 연대성을 가지는 재생의 의미이며 진실로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를 사랑하는 극진한 인간애의 발현인 것이다. 증산은 이에 대하여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서민적인 방법으로 그의 종교적 구도를 감행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은 한민족의 것이며 세계보편의 종교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 특수성이 또한 귀족적 사유체계가 아니라 민중적이며 서민적이다. 그래서 동학도들보다 더 서민적인 기층의 민중이 증산을 따랐던 것이며 이들 서민의 욕구는 보편적이거나 합리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것을 원한다. 석가의 수기설법이 그러했듯이 증산의 사유체계와 종교행위도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기보다 변화무쌍하고 갱생(更生)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명계를 대상으로 하는 포한과 그 해원의 한 양상은, 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해소하고 소원하던 바를 충족시키는 일이며, 분풀이를 가져올 수 있는 척의 참회라는 의례를 통해서 이룩된다. 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원한으로 상극되었던 장벽이 무너지고 상생의 화평상태가 회복된다는 점이며 이 화평이야말로 진경(眞境)의 바탕이 된다고 하겠다.

### 3. 인계(人界)공사

후천의 선경세계는 개벽이라는 종교적 연출을 통해서 열리는 이상세계이다. 그 개벽을 위해서 도수를 조정하여 현상의 세계를 조화(造化)한 것이며 이것이 증산이 주체가 된 공사의 처결이었다. 그 공사 중의 하나가 선기옥형(璇璣玉衡)의 도수<sup>40)</sup>를 정하는 일이다. 이것은 세상의 일을 선기옥형이라는 무게를 재는 저울대

39) 상제께서 가라사대 한고 역신을 해원하여 모두 성수(星宿)로 붙여 보내리라. 만물이 다 시비가 있되 오직 성수는 시비가 없음이라. 원래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이므로 원한이 천지에 가득하였거늘 세상 사람은 도리어 그 일을 밋게 보아 흉악의 머리를 삼아 욕설로 역적놈이라 명칭을 붙였나니 모든 역신은 이것을 크게 싫어하므로 만물 중에 시비가 없는 성수로 보낼 수 밖에 없나니라.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는 시비와 상극이 없나니라” 하셨도다. (전경, 교범 3-6)

40) 선기옥형이란 천문을 측도하는데 쓰였던 기구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사와 관련하여, 달과 해

로 상징한 것이다. 저울의 끈과 저울대에 천지대팔문(天地大八門), 즉 성수(星宿)를 붙이고 저울의 갈고리에 일월(日月)을 붙여 끈과 저울대를 문공신, 저울 갈고리를 신경수, 저울의 추를 황응중<sup>41)</sup> 등의 그를 추종하던 종도들에게 가차하여 모든 사람의 의로움과 불의(不義)를 재는 것이다. 그 무게에 따라서 복록과 수명이 결정될 것이니 이는 일종의 종교적인 심판신앙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식욕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증산이 재세했을 당시의 일반 생민들의 생활상을 고려해 보면, 특히나 증산이 잔반 출신이고 당대의 서민들을 그 대상으로 종교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인간에 있어서의 일차적 욕구 충족은 그에게 있어 종교사상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천의 세상에서는 식욕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sup>42)</sup>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증산은 일반 생민들의 기본적 생활기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sup>43)</sup>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sup>44)</sup>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고생이 있을지라도 내가 단식하여 식욕을 붙여주고 여름에는 겹옷을 겨울에는 홑옷을 입어 뒷날 빈궁에 빠진 중생으로 하여금 옷

와 별 등의 천체운행을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한다.

41) 상제께서 여러 종도들의 집에서 선기 옥형(璿璣玉衡) 도수를 정하시니 신경수의 집에 저울 갈고리 도수를, 황응중의 집에 추도수를, 문공신의 집에 끈도수를, 그리고 신경수 집에 일월 대어명 도수(日月大御命度數)를 문공신 집에 천지대팔문(天地大八門) 도수를 정하고 이 세 종도의 집에 밤낮으로 번갈아 다니시며 공사를 행하셨도다.(전경, 예시 31)

42) 농사를 짓는데는 水火, 비와 햇빛의 상통(相通)이 절대 필요한 조건이 된다. 그런데도 수한(水旱)의 겹재가 되풀이 되어, 삶을 시시로 위협하여 온다.

43) 전경, 예시 80.

44) 전경, 예시 81.

을 얻게 함이니 고생을 참을지어다. 장차 천하 만국을 주유하며 중생을 가르칠 때 그 영화는 비길데가 없으리라.<sup>45)</sup>

앞의 인용문에서 증산이 현실적 질곡에 시달리던 서민의 욕구충족에 대한 종교적 대처 행위의 당위성을 살필 수 있으며 그래서 기층의 민중들은 그의 종교적 사유에 의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농경제에 대한 자연 환경적 상황이 고르지 못한데서 농작물이 꺾절하게 되고<sup>46)</sup> 그로 인해서 배고픔과 삶의 현실에 대한 하소연이 구천에까지 달하게 된다. 그 배고픔의 참상을 해소하고 인류를 널리 구하기 위하여 “불과 물만 가지면 비록 석산바위에 있을지라도 먹고 사느니라.”<sup>47)</sup>고 기록하고 있으며 “만국창생들의 새 생활법으로서 물화상통을 펼치셨도다”<sup>48)</sup>고도 기록하여 물화상통(物貨相通)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이것은 오행에 있어서의 수화상통(水火相通)과 관계하며, 물이 이곳 저곳에 흘러 상통하려면 물이 풍족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흘러야 할 것이며 풍족한 곳의 물도 땅이 잘 받음되어야 할 것이고 땅에서 모자라는 물은 하늘에서 내려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상통이 이룩될 때 비로소 물은 고르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상징적인 주술의례로 물의 상통을 꾀하였다.

상제께서 만국 창생들의 새 생활법으로써 물화상통을 펼치셨도다. 종도들이 상제의 명을 좇아 공신의 집에서 밤중에 서로 번갈아 그 집의 물독 물을 반 바가지씩 퍼내 우물에 쏟아 붓고 다시 우물 물을 반 바가지씩 독에 붓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여러 우물과 독의 물을 번갈아 바꾸어 갈아 부엌도다.<sup>49)</sup>

다시 말하면 종도들로 하여금 물독의 물과 우물의 물을 서로 번갈아 퍼내고 붓는 행위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닳은 것은 닳은 것을 낡는다는 유감주술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며 상통을 상징화 한 것이다. 그 상통은 독과 우물 사이의 반복으로

45) 전경, 예시 82.

46)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뚝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꺾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뜰어고치지 못하면 안되느니라” 하시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보셨도다. 상제께서 공사를 끝내시고 가라사대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 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하셨도다. (전경, 공사 1-11)

47) 전경, 공사 2-18 참조.

48) 전경, 공사 2-23 참조.

49) 전경, 공사 2-23.

한곳에 고이지 않도록 이곳과 저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표명된 것이며 그 반복과 옮김으로써 고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통함으로써 수덕(水德)은 얻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농업에 있어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일조량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상제적 권능으로 검은 구름을 하늘에 뒤덮어서 과열된 햇빛을 가려서 비를 내리게도 하고<sup>50)</sup> 때로는 벽력표(霹靂票)를 땅속에 묻어서<sup>51)</sup> 햇빛을 고르게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물과 불을 상통하도록 하여 일반 생민들의 제일 생활고인 굶주림을 없애려는 노력을 종교적 사유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이 사정을 전경은 “내가 천지공사를 행하면서부터 일체의 아표신(餓莩神)을 천상으로 몰아 올렸으니, 이후에는 백성이 기근으로 죽는 일이 없으리라.”<sup>52)</sup>고 기록하고 있다.<sup>53)</sup>

#### 4. 제생의세(濟生醫世)공사

한편 증산은 당시 창궐했던 괴질을 의식하여 의세의 역사를 감행하기도 한다.

……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책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醫統)을 잘 알아 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겁재를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이 남았으니, 몸 둘 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오듯 하리라.<sup>54)</sup>

50)四月에 들어 심한 가뭄으로 보리가 타니 농민들의 근심이 극심하여지는도다. 종도들도 굶을 걱정을 서로 나누니 상제께서 「전일에 너희들이 보리를 없애버림이 옳다 하고 이제 다시 보리 흉년을 걱정하느냐. 내가 하는 일은 농담 한 마디라도 도수에 박혀 천지에 울려 퍼지니 이후부터 범사에 실없이 말하지 말라」고 꾸짖으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전주 용두리 고개 김 낙범에게 들러 거친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그릇을 보고 「빈민의 음식이 이러하니라」고 하시면서 다 잡수셨도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하더니 삼시간에 큰 비가 내리니 말라 죽던 보리가 다시 생기를 얻게 되었도다.(전경, 행록 4-15)

51) 상제께서 추운 겨울 어느날 창조의 집에 오셔서 벽력표(霹靂票)를 땅에 묻으시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천지를 진동하니라. 이튿날 상제께서 동곡 약방으로 행차하셨도다(전경, 권지 2-25)

52) 전경, 권지 1-8.

53) 이 공사를 행하므로써 일체의 아표신이 천상으로 올라가니 땅에 굶주림이 사라지고 그 신들의 재해가 없어지도다.(전경, 예시 11)

54) 전경, 공사 1-36.

고 예시하고 병겁을 돌리는 공사를 폈다. 그 역사는 앞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병겁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크나큰 병겁이 될 것이고, 그 병겁을 돌리려면 현재의 의술(醫術)이나 약재로는 어려우므로 새로운 의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의통인 것이다.<sup>55)</sup> 이것은 삼계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적 인물의 일반 민중들에 대한 상징적 행위인 것이니 이의 실체나 의학적 과정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또한 증산은 그의 병세문에서 질병을 ‘병유대세(病有大勢), 병유소세(病有小勢)’라고 하여 그 추세에 따라 대소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추세에 따라서 생긴 여러 가지 병의 근원은 ‘무도(無道)’에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sup>56)</sup>

病有大勢

病有小勢

大病無藥 小病或有藥

然而大病之藥 安心安身

55) 상제께서 용두리 주막에 계실 때 광찬에게 한방의서(漢方醫書) 방약합편(方藥合編)을 사오게 하시고 네가 병옥의 집에 가서 쭈묵(朱墨)으로 이 책중에 있는 약명에 비침을 찍으라”이르시니 광찬이 명대로 시행하여 올리니 상제께서 열람하시고 그 책을 불사르셨도다.(전경, 공사 2-12) ; 상제께서 대흥리에서 삼십장의 양지 책의 앞장 십오장 마다 배은망덕 만사신 일분명 일양시생(背恩忘德萬死神 一分明一陽始生)을, 뒤장 십오장마다 작지불지 성의웅약 일음시생(作之不止聖醫雄藥 一陰始生)을 쓰고 경면주사와 접시 한개를 놓고 광찬에게 가라사대 이 일은 생사의 길을 정함이니 잘 생각하여 말하라”..... (전경, 공사 3-9) ; 상제께서 하루는 구릿골에서 밤나무로 약패(藥牌)를 만들어 패면(牌面)에다 만국의원(萬國醫院)이라고 글자를 새겨 그 글자 획에다 경면주사(鏡面朱砂)를 바르시고 이 약패를 원평(原平) 길거리에 갖다 세우라고 공우(公又)에게 명하셨도다. 공우가 약패를 갖고 원평으로 가려고 하니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이 약패를 세울 때에 경관이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하려하느뇨” 하시니 공우 여쭙길 한국의원(萬國醫院)을 설치하고 죽은 자를 재생케 하며 눈먼자를 보게 하고 앓은병이도 걷게 하며 그밖에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리라고 하겠나이다.”고 아뢰니 네 말이 옳도다. 그대로 시행하라”하시고 그 약패를 불사르셨도다.(전경, 공사 3-35) ; ...제생 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 혁세(災民革世)는 웅패의 술이라....(전경, 교운 1-16) ; .....스물 네가지 약종만을 잘 쓰면 만국의원(萬國醫院)이 되리라....(전경, 예시 72)

56) 차철의 기후에 맞게 정신을 수양한다(四氣調神) 수양하는 방법(道)으로 병을 치료한다(以道療病) 마음에 잡념이 없어야 수양하는 이치에 맞는다(虛心合道) 양생법(道)을 배우는 데는 빠르고 늦은 것이 없다(學道無早晚) 사람의 마음은 천기와 부합된다(人心合天機)”고 하여 동의보감에서는 이미 치심(治心)은 도(道)로써 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현대의학 증상치료에 대한 원인치료를 근간으로 삼는 선철의 직관력이라고 하겠다.

小病之藥 四物湯八十貼

.....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小病勿藥自效

.....

醫統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

病勢

有天下之病者 用天下之藥 厥病乃愈

.....

大仁大義無病

.....

知天下之勢者 有天下之生氣

暗天下之勢者 有天下之死氣

.....

聖人乃作 先天下之職 先天下之業 職者醫也 業者統也

聖之職聖之業<sup>57)</sup>

위의 인용문을 근거로 하여 소세의 병으로부터 차례로 그 역사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sup>58)</sup>

증산은 처음으로 의법(醫法)을 화정동(花亭洞)에서 베풀고<sup>59)</sup>, 그후에 동곡약방

57) 전경, 행록 5-38 참조.

58) 제의들은 실존의 중요한 순간들을 극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삶에 구조를 제공한 다. 어떤 사건들은 부각되어 실존을 포괄적이고 질서 있는 복합체로 정돈하는 상징의 역할을 하게되며, 제의는 인간이 그 제의를 통해 과거를 되살리고 시작을 재확립할 수 있을 때만이 종교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L K. 뒤프레, 권수경 역(1996), 앞의 책, pp.76-77)

59) 상제께서 처음으로 의법(醫法)을 화정동(花亭洞)에서 베푸셨도다. 이경오(李京五)는 화정동을 사는 사람이라. 어느날 그와 친분이 있는 박금곡이란 대원사(大院寺) 주지가 경오의 신병을 아 되고 심방을 상제께 간청하므로 상제께서 그의 병세를 보시니라. 왼쪽 발가락이 저리고 쭈시며 오후부터 새벽까지 다리가 부어 기둥과 같이 되는지라. 그러나 그 부기가 아침에는 내렸다가

(銅谷藥房)을 차려 만국의원(萬國醫院)을 펼 때까지 소세의 병을 평유(平癒) 하였다. 이것을 모본(模本)으로 증산은 약재를 쓰지 않고 전주와 하운동 사이를 다니면서 병마를 다스렸다.<sup>60)</sup> 이로써 당대의 기층민중들은 그 신력(神力)에 크게 놀라 신인으로 숭앙하기도 하고 경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증산의 동국 약방은 천지(天地)를 만드는 도술약국, 즉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약국이 되었다.<sup>61)</sup> 증산은 여러 가지의 종교적 상징의례를 통하여 동국약방을 도술약국, 생사판단을 판가름하는 만국의원으로 만든 것이다. 그 만국의원의 생사판단은 사람의 진맥을 집고 병세를 판단하는 의학적 치료행위가 아니라, 천맥(天脈)을 집을 수 있는 신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 신술에 의해서 죽은 자는 재생하게 되고, 눈이 먼 자는 보게 되고, 앓은뱅이는 걷게 되는 종교적 신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용두치에 사는 앓은뱅이가

예고신 예팽신 석란신(曳鼓神曳澎神石蘭神) 동서남북 중앙신장(東西南北 中央神將)  
조화조화 운오명령홍(造化造化 云吾命令昨)

이라는 주문이 낭송되는 속에서 증산이 담뱃대를 차차 높이 올리는 데에 따라 일어나 걷는<sup>62)</sup> 신이(神異)를 보인다. 괴질이 청주(淸州)와 나주에 창궐하였을 때 증

---

정오경에 원상으로 회복되다가도 오후에 붓기 시작하느니라. 이 증세가 삼사년 계속되어 이제 촌보를 옮기지 못하고 앓은뱅이 노릇을 하게 되었도다. 상제께서 진맥하시기를 친실로 괴상한 병세로다. 모든 일이 적은 일로부터 큰 일을 해야리나니라. 내가 이 병으로 표준을 삼고 천하의 병을 다스리는 시험을 하리라.” 상제께서 손수 다리 끝까지 만지고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씻으라 이르시니라. 경오 명하신 대로 하니 곧 나으니라.(전경, 제생 2)

60) 임인년에 상제께서 전주와 하운동(夏雲洞) 사이를 다니시면서 약재를 쓰지 않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건져주시니 모든 사람들은 그 신력에 경복하였도다.(전경, 제생 4)

61) 약방을 설치하신 후 원형이정 봉천지 도술약국 재전주동국 생사판단(元亨利貞奉天地道術藥局在全州銅谷生死判斷)이란 글귀를 쓰셔서 불사르셨도다. 약장은 중삼 횡오 도합 십오간으로 하고 가운데에 큰 간이 둘 아래로 큰 간이 하나이니라. 상제께서는 그 위 십 오 간 중의 가운데 간에 단주수명(丹朱受命)이라 쓰고 그 속에 목단피를 넣고 그 아래에 열풍 뇌우 불미(烈風雷雨不迷)라고 횡서하고 또 칠성경을 백지에 종서하고 그 끝에 우보 상취 등양명(禹步相催登陽明)이라 횡서하고 약장 위로부터 뒤로 밀판까지 따라서 내려 붙이고 그 위에 양정유월 이십일 음정 유월 이십일(陽丁六月廿日陰丁六月廿日)이라 쓰시니라. 궤 안에 팔문둔갑(八門遁甲)이라 쓰고 그 글자 위에 설문(舌門) 두 자를 낙인하신 후 그 글자 주위에는 二十四점을 홍색으로 찍고 약방에 통감(通鑑)·서전(書傳) 각 한질씩 비치하였도다.(전경, 공사 2-9)

62) 용두치에 교자를 타고 다니는 김모란 앓은뱅이가 살고 있었도다. 그가 하루 상제를 찾아 뵈옵고 편히 걸어다니게 하여주시기를 애원하니라. 상제께서 그를 앞에 앉히고 담뱃대에 따라 일어

산은 괴질신장에게 칙령(勅令)하고 대속하여 괴질을 다스리기도 한다.<sup>63)</sup>

한편 위의 병세문에서 보듯이 증산은 세상이 모두 병들었다는 ‘천하개병(天下皆病)’론을 펴고 있다. 이는 무도(無道)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천하에 약이 없어서 천맥(天脈)을 집지 않고서는 진단되지 않는 것이다. 그 대병이란 어버이를 모르고 군왕을 모르고 그 스승을 몰라서 세상에는 효도 없고 충이 없고 모본이 되는 자에 대한 열(烈)도 없다<sup>64)</sup>는 도덕적 현상이며 이의 연유가 모두 무도이니 이 천하의 대병에 쓸 수 있는 천하의 약은 오로지 무도(無道)에 대한 유도(有道)<sup>65)</sup> 뿐이며 이를 ‘천하지약(天下之藥)’이라고 명명한다. 그 명명된 천하의 약이란 ‘안심안신(安心安身)’과 ‘대인대의(大仁大義)’이다.<sup>66)</sup>

이러한 증산의 천맥진단에서 천하대병의 병세(病勢)는 천하가 “비인정(非人情), 비정의(非情義), 비의회(非義會), 비회운(非會運), 비운통(非運通), 비통령(非通靈), 비영태(非靈泰), 비태통(非泰統)”하다<sup>67)</sup>고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불가근(不可近)’의 잠언과 함께 안심안신과 대인대의의 천하지약을 얻는데 도덕적 자기연수와 대타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서라고 이르고 그가 담뱃대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높이 일어서려고 애를 쓰게 하시고 형렬에게 「예고신 예팽신 석란신 동서남북 중앙신장 조화조화 운오명령홍(曳鼓神 曳彭神 石蘭神 東西南北 中央神將 造化造化 云吾命令咩)」을 읽게 하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다시 그를 뜰에 세우고 걷게 하시며 광찬으로 하여금 그의 종아리를 쳐서 빨리 걷게 하시니라. 그는 교자를 버리고 걸어서 돌아갔도다. 그후에 그는 걷게 된 인사로 상제께 삼십냥을 공양하니 상제께서 그것으로 행인들에게 주식을 베풀어주고 그 사람은 행인들 앞에서 상제께서 다리를 퍼주셨다고 고마운 인사를 하니라.(전경, 제생 11)

63) 이 무렵에 괴질이 청주(淸州)와 나주(羅州)에 창궐하여 인심이 흉흉한지라. 상제께서 탐복으로 마주 터지니 장차 무수한 생명이 잔멸하리로다.”고 말씀하시고 글을 써서 괴질 신장에게 호 불범 제왕 장상지가 범차 무고 창생지가호(胡不犯帝王將相之家 犯此無辜蒼生之家乎)라 칙령하시고 태가 이것을 대속하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새 옷 다섯 벌을 급히 지어오게 하시니라. 가져온 옷으로 상제께서 설사하시면서 다섯번 갈아입고 약한 자는 다 죽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이후부터 그 괴질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없어졌도다. (전경, 제생 23)

64)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 (전경, 행록 5-38)

65) 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小病勿藥自效

66) 然而大病之藥 安心安身..... 大仁大義無病

67) .....非人情不可近 非情義不可近

非義會不可近 非會運不可近

非運通不可近 非通靈不可近

非靈泰不可近 非泰統不可近.....(전경, 교법 3-47)

이다.<sup>68)</sup>

이상의 의세(醫世)의 역사(役事)를 개괄하건데, 증산은 천지인 삼계의 맥박을 판단(判斷)하여 무도(無道)를 치유하고 유병(有病)을 다스리며, ‘안심안신(安心安身)’과 ‘대인대의(大仁大義)’의 끊임없는 자기연수를 통하여 약 없이 저절로 낫는 ‘물약자효(勿藥自效)’의 종교적 치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 V. 마무리 하기

상징은 상징되는 대상의 내부 구조를 통해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징은 비록 독립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칭되는 대상과 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된다. 또한 상징은 모두 상징 자체의 감각적 외양 너머에 있는 실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결코 먼저 있었던 실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재를 드러낸다.<sup>69)</sup> 결국 상징은 의미를 환기시키거나 암시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앞서며, 우선적으로 그리고 본래 형상적인 것이며,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자체로 관념의 원천이 된다.

모든 상징화는 수많은 인상들 사이의 관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개념화하는 언어 상징들은 관계를 각 단위가 독립적인 내용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들의 체계 안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한다. 언어에는 이 단위들을 엄청나게 복잡한, 그러나 명확하게 정의된 의미들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어는 비언어적 상징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구조들을 세울 수 있다.<sup>70)</sup>

또한 상징들이 다 그러하듯이 제의 역시 삶의 경험을 구성하고 설명하며 지원한다. 제의는 즐겁고 슬픈 일들을 상징하는 것이지 결코 제의 자체가 즐겁거나 슬픈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제의적 행동의 목적은 그 행동이 상징하는 일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보다 높은 관점 가운데 담으로써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sup>71)</sup>

68) 전경, 교법 3-47 참조.

69) L K Dupre, 권수경 역, 앞의 책, 40-41쪽.

70) 앞의 책, pp 51-52.

71) 이 주장은 엘리아데가 지적한 사실 곧 제의화적 동력은 모든 행동을 제의적 행위로 변형시킨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종교인의 이상은 물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제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물이 거룩한 것의 표현이 될 가능성이 있듯이 모든 행위는 종교적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M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특히 특정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옮기는 통과 제의들(입회, 결혼, 죽음)은 변화 그 자체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이 제의들은 아마도 모든 제의들의 종교적 의미, 즉 변형을 통한 실재의 확립이라는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준다.<sup>72)</sup>

이러한 종교적 상징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신화(神話)의 경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민족의 집단적 신비체험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신비체와 어떻게 조우하고 그것을 인간들이 어떻게 수용하였는가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서사적 기록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연(一然)이 상고시대의 왕권신화와 불교의 이적담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이다.<sup>73)</sup>

대순사상에 있어 천지공사가 가지는 종교적 상징의 해석은 종교적 자기각성을 한 증산과 그의 이적들이 조선후기사회의 민중들을 상대로 하여, 다가올 종교적 이상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련의 표상과정으로 이해가 될 때 가능하다. 특히 증산이 최고신인 구천의 상제임을 자임하고 공사의 매개와 대상을 신, 신명 또는 신적 존재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현상세계로 관계맺고 있다. 이같은 신의 상징성은 한국문화에 깊이 각인되어 조상숭배와 가계(家系)확립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한다. 신은 인간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원천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인의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뿌리 또는 그 원형은 이러한 신의 상징성과 깊이 관계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개인적인 것, 개별적인 것의 근원회귀, 그것도 전일자로서의 근원에 대한 회귀가 신의 상징성을 결정지은 것이다.

이와 같이 증산의 천지공사는 무와 혼돈에서 새로운 역사를 빛는 종교문화이다. 또한 역사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각성하면서 그가 일반 대중들과 함께 고통과 한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자 했던 일련의 종교행위이다. 그러므로 기층의 민중들은 증산의 설계에 의하여 현실의 질곡을 딛고 미래의 희망을 향하여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천지공사는 우리 사회의 표상과정인 셈이다.

---

Religion, p. 460)

72) L K Dupre, 권수경 역, 앞의 책, 78-79쪽.

73) 김열규, 〈한국신화의 상징체계에 관한 연구〉, 《전통과 사상 I》, 경기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47-49쪽.

《참고문헌》

《전경》

- 김열규, 〈한국신화의 상징체계에 관한 연구〉, 《전통과 사상 I》, 경기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김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 〈인존사상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 《대순사상논총 제7집》, 경기포천:대순사상학술원, 1999.
- , 〈대순진리회 종지의 개별적 특성〉, 《대순사상논총 제6집》, 경기포천:대순사상학술원, 1998.
- 이계학, 〈덕성과 지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유가의 지혜론〉, 《2001학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보고서 III-2》 참조, 미간행.
- 이은봉, 《종교와 상징》, 서울:세계일보, 1992.
-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서울: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 장병길, 〈해원공사의 본질고〉, 《증산사상연구 제5집》, 서울:증산사상연구회. 1979.
- C.G.Jung, 이윤기 역, 《인간과 상징》, 서울:연린책들, 2003.
- L.K.Dupré, 권수경 역, 《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서울:서광사, 1996.
- M.Eliade, 박규태 역, 《종교의 의미》, 서울:서광사, 1991.
- ,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서울:까치, 2000.
- O.F. Bollnow, 백승균 역, 《인식의 해석학》, 서울:서광사, 1993.
- M.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 Wilbur M.Urban, Language and Reality (London:George Allen & Unwin, 1939),

---

원고접수: 10월 16일                      1차심사: 11월 12일                      게재승인일: 11월 30일

연구자 소개

- ① 전공: 교육사교육철학      /      소속: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한국종교사상
- ③ 주요논저: 〈대순사상과 생태적 환경보존의 문제〉, 〈대순사상의 인간학적 접근〉, 〈조선후기 종교사회적 갈등 구조의 해석〉
- ④ E-mail: jkyounkr@hanmail.net
-

# Symbolic interpretations for meanings of 'Daesoon-Thought' - With the emphasis on 'ChunGi-Gongsa' -

Youn, Jae-Keun  
(Daejin University)

## 《Abstract》

'Daesoon-Thought' originated from by 'Jeungsan' is considered as the messianic and democratic one, while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essences and fundamental meanings hidden in Thought of 'Jeungsan' because his thought is metaphorical and multiphase. The very essence of thought of 'Jeungsan' is 'ChunGi-Gongsa' that makes it possible to transform the humble real world into utopia, called 'Hoocheon' through the means of 'Gaebyuk'. Since 'ChunGi-Gongsa' is based on his religious experiences regarding people and external environments, it should be understood as the symbolism acting on his religious experiences, rather than trueness on each individual fact. In this regards, the paper tries to interpret several instances of 'ChunGi-Gongsa' by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symbolism, and show the meaning of the languages and artifacts appearing in the religious ceremony, along with examining how they interact with the real world.

Key words: 'ChunGi-Gongsa', 'Gaebyuk', religious ritual, religious symbol